



박서윤 중학교 3학년

2024 년 06 월 14 일 월요일

날씨 맑음

기사정리

이번 초 여름, 한라산에 분홍빛으로 활짝 피어야 할 산철쭉이 이상기후로 인해 개화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라산 뒷세죽 오름 등 선착지맛 앞대에는 이맘때쯤이면 연분홍 꽃이 들판을 뒤덮었지만 현재는 산철쭉 꽃이 없애 푸른풀들만 자라 마치 가을 한산 같은 분위기를 보인다.

산철쭉이 개화하지 못한 이유는 지난달 개화시기를 앞두고 생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산철쭉은 대체 5월 말 ~ 6월 초 해발 1400m 고지에서 개화를 시작해 1600m 고지인 밤아오름, 당대동산, 선착지맛, 백옥담 등에서 잇따라 피어나 6월 초중순쯤 만개한다. 그러나 올해는 꽃이 눈을 뜰 때쯤인 5월 중순 한라산의 야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산철쭉 개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산철쭉 개화를 기록한 최근 15년 사이에 이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나의 실천

이상기후를 막기 위해 생활속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발생을 줄였다. 버스를 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불편하지도 않았다. 실천하고 나니 환경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당장 한라산 산철쭉을 다시 피우게 할 수는 없지만 세가 실천한 이러한 행위들이 모여 나중에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생각

기후변화난국

한라산의 산철쭉 꽃이 냉해로 인해 꽃을 피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웠다.

매년 초여름, 예쁜 분홍빛으로 물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정경을 선사하던 한라산도 이상 기후로 인해 침침 그 모습을 잃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이 일로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혜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일처럼 언제든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들의 실망감이 크겠지만, 이런 경험이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24년 06월 18일 화요일

날씨 맑음

기사 정리

브라질 판타누 습지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 11일, 마투르수투슬주의 룰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나무들이 불타고 연기가 치솟았다.

브라질 국립연구소(INPE)에 따르면, 올해 6월들이 15일 까지 판타누에서 73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2015년의 종전 기록인 435건을 크게 넘어섰다. 화재로 인한 토질 면적도 2400km²에 달해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판타누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폭염과 화재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세계 야생생물 기금(WWF)은 2024년이 판타누에 '사상 최악의 해'로 기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폭염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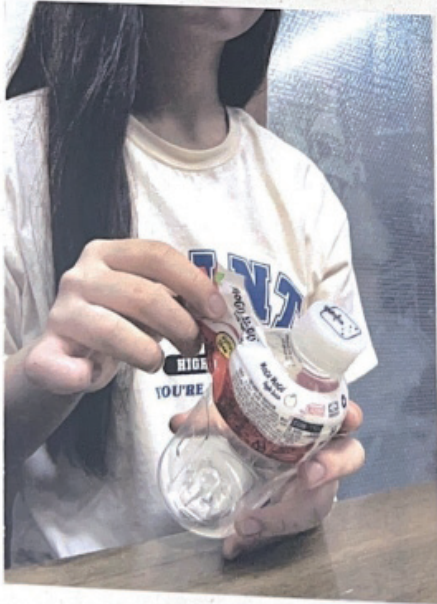
판타누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폭염 현상의 일환이다. 올해 6월에만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기온이 월별 또는 연간 기록을 갱신했으며,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은 15.9도로 역대 5월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역대 가장 더운 달' 기록을 12개월에 이머가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엘니뇨와 기후변화로 인한 열돔 현상을 지목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엘니뇨가 하반기에 사라지고 라니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타누 습지의 사례는 기후변화와 폭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사를 읽고 난 후 나의 생각

판타누 습지가 기록적인 폭염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들었다. 이번 화재와 폭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특히,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은 더욱 우려를 낳는다.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폭염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문제임을 상기 시킨다.



나의 실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이런 재난이 더 빈번해지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개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행동은 먼저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고 생각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수의 플라스틱 병에는 대부분 라벨이 붙어 있다. 병을 버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벨이 붙어있는 채로 버리곤 한다. 하지만 병은 플라스틱, 라벨은 비닐이므로 라벨을 제거해서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다.





박서윤 중학교 3학년

2024년 06월 19일 수요일

날씨 맑음

기사정리

강원 인제군 사회복지관은 '초록인제, 체인지 메이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환경살롱가를 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진행되었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을 기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에는 인제군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40명이 선발되어 참가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모니터링, 바다쓰레기로 예술작품 만들기, 탄소 중립 및 수질 탐사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해변가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환경 사생대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들이 직접 환경보호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환경살롱가 활동이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학생들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인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나의 생각

기사를 읽고 난 후

나도 지난번에 플로깅을 몇 번 해 본적이 있어서 이번 기사가 더 잘 이해가 됐고 또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에 할 때는 별 생각 없이 부모님이 하시니 같이 따라한 것이었지만 점점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플로깅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길거리에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들이 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과 무단투기에 대한 인식 또한 알 수 있었다. 이혼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나 하나라도 조금 더 신경써서 생활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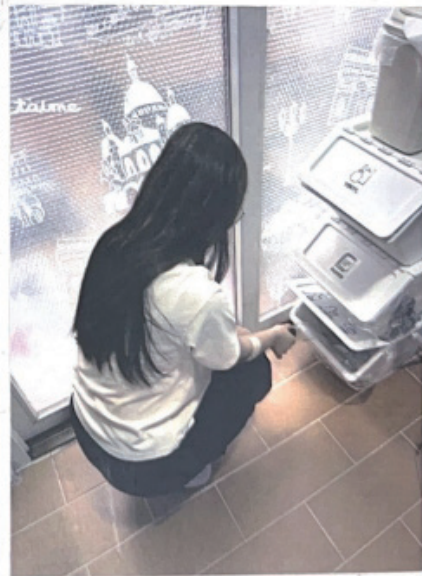
인제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다.

나의 실천

난 지금까지 플로깅을 몇 번 해본적이 있었다. 직접 길가의

쓰레기들을 수거해 보니 쓰레기의 양이 엄청났다. 담배꽂이부터 폐지, 종이 봉투, 플라스틱 쓰레기 등 길가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쓰레기를 깨고 있기 불편하다고 아무렇게나 두껍게 버리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나 자신부터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도 생각했다. 페트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라벨은 맨날유에 병은 플라스틱 줘에 분리배출 하였다.

이러한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이 하루 빨리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동 하였다면 좋겠다.



보도자료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지역



박서윤 중학교 3학년

2024 년 06 월 04 일 월요일 날씨 흐림

기사정리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담배꽂이 무단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다. 특히 중구 광역 인근에서는 담배꽂이와 쓰레기가 뒤섞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담배꽂이 투기 단속건수는 연평균 7만 6393건으로 매년 7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추가보상제, 플로깅 등 담배꽂이나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빗물받이 안에 버려지는 담배꽂이를 포한 문제다. 빗물받이 내 담배꽂이 발생량은 서울 상업, 위락 시설의 경우 일평균 42~55개에 달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담배꽂이를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빗물받이 1만 6000여개가 있는 중구의 경우 지난해 14억원이 들어 빗물 받이를 청소했다. 중구에서 한 환경미화원은 "2시간 뒤에 같은 자리에 돌아오면 또 담배꽂이가 쌓여있다"고 말했다.

나의 생각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담배꽂이 무단투기가 심각한 문제이며 시민의식과 도시환경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19세 이상 인구의 흡연률이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담배꽂이가 길거리에 버려지고 도심은 담배꽂이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다.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담배꽂이와 쓰레기를 보면, 일상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다. 빗물받이에 쌓인 담배꽂이는 배가 울 때마다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며,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구멍이 되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담배를 파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정된 흡연역에서만 흡연하고, 담배꽂이를 올바르게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담배꽂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쓰레기 또한 지정된 쓰레기함에 버리고 절대 무단투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배수(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한 담배꽂이 때문에 하수관 속에서 불꽃 치솟는 사건도 일어났다. 무엇보다 버린 꽂이의 불쏘서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도시환경문제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모두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나의 실천

가족과 함께 플로깅을 하러 갔다. 덕유산에서 직접 플로깅을 하며 도심 속 뿐만 아니라 산에도 쓰레기가 정말 많다고 느꼈다. 담배꽂이나 페트병 등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쓰레기도 많았다. 플로깅하며 간소한 행이고, 환경도 지키는 한해 시민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박듯했다.



아

7월 5
인근.
난 갈
사이
있었다
나라도
악취를
배출
치한
공초
계다
위에
이
배출
쓰러
불을
19세
하러
이
서울
권수는
만
구경



2024년 06월 25일 화요일 날씨 맑음

기사정리

쓰레기에서 발효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 같은 다른 온실가스보다 100배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가져온다. 쓰레기 매립지 등 미충간한 상태의 유기물에서 나온 메탄가스가 고대 공기 중에 흩날린다. 또 각종 생장제, 메탄가스가 고대 공기 중에 흩날린다. 또 각종 생장제, 배터리, 소형 가전제품 등 매립지에 버리면 안 쓰는 물건에서 유독한 물질이 나와 토양에 흡수됐다가 비가 내리면 바다나 지하수를 흘러 들어간다.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즉 점점 적어지지만 할 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점점은 자구에 영향을 미친다. 생활환경에서 자라나 나올 자라는 친환경 실천방법을 소개하겠다.

*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청소생활'

1. 다목적 세제

DIY 다목적 세제는 화장실과 대리석을 제외한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다.

(피땀과 물과 백산을 1:1의 비율로 섞어 스프레이 용기에 담는다.)

4. 천연 디퓨저

집에 온 손님에게 은은하게 좋은 향을 선사하고 싶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백선유를 0.5:1.5의 비율로 섞고 틀레피와 함께 끓인다. 재료가 끓으면 불 낮추고 대 5분간 끓여내면 된다.)

2. 탈취제

부엌은 살균 효과가 있어 박테리아로 인한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다.

(브키와 집수한 물을 1:1의 비율로 스프레이 용기에 넣고 살균한다. 탈취제를 뿌리고 난 후에는 바람이 닿는 곳에 놓아둔다.)

5. 살거사용 세제

살거할 때 탄산수나트륨을 활용하면 향을 없애고 세척할 수 있으며 물을 반량씩 해준다. 유리나 플라스틱에 닿지 않는다.

(구멍에 물을 골고루 탄산수나트륨 1큰술을 넣고 섞어준다. 다용도용 액상 락스를 넣은 뒤 잘 섞어준다. 물에 희석하여 쓸 수 있다.)

3. 카펫 탈취제

신발에 묻은 흙이나 먼지 등으로 카펫이 좀 더 심하게 오염된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자.

(베이킹소다와 제피는 탈취 효과가 강력하다. 제피가루와 베이킹소다를 1:2의 비율로 섞고 냄새가 심한 카펫 위에 뿌린다. 최소 3시간 정도 그대로 둔 후 진공청소기로 가루를 빨아들인다.)

6. 샴푸세척기 전용 세제

샴푸세척기를 이용하면 손으로 샴푸하기는 것보다 물을 절약할 수 있다.

(* 비누: 굵은소금 2큰술, 베이킹소다 2큰술, DIY 탈취제용 세제 1/2 작은술.)



나의 실천

위에서 소개한 환경을 지키는 청소생활 중에서 한끼를 택하여 가정에서 직접 실천해 보았다.

살거제용 세제를 만들어 살거제를 하였다.

탄산수나트륨은 가정에서 쉽게 어려운 재료이지만, 직접 경험해 만들어 사용할 수 있었다.

베이킹소다를 정만에 깔고 오븐에 400도 정도 구우면 된다.

베이킹소다에 열을 가하면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면서 중탄산 나트륨 (베이킹소다)의 화학 구조가 바뀌어 탄산수나트륨이 된다. 직접 만든 세제는 설거지를 하니 뿌듯한 마음으로 실천을 지킬 수 있어 좋았다.





박서윤 중학교 3학년

2024년 06월 26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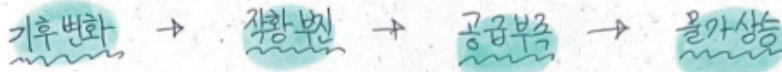
날씨 맑음

기사쟁리

기후 플레이언스에 따른 작황 악화로 평소 즐겨먹는 초콜릿, 올리브 같은 식품 가격이 연일 급등세다. 코코아 가격이 '급락'으로 치솟은 주된 이유는 비로 기 때문이다. 엘니뇨 현상에 따라 코코아 주요 산지인 서아프리카 가나,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코코아 나무가 병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문제는 코코아 작황 부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콜릿, 베이커리를 만드는 쿠키팩 등은 이달 이미 가격이 오른 제품 가격을 평균 12%를 올렸다. 글로벌 초콜릿 기업 허쉬와 페레로도 초콜릿 등 기간 제품 가격을 연이어 10% 이상 올리고 있다.

- * 엘니뇨: 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
- * 기후 플레이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식료품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기후위기와 물가상승의 관계



기후위기가 초래한 물가 상승



사과 등 과일: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2월 신선과일 물가 4.1%, 2% 올라
82년만에 최고치

코코아



기온.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 코코아 가격 3배 가까이 상승. 초콜릿 제품 가격 인상



김: 해수온도 상승으로 김 수확량 감소
전남 11%, 충남 8%, 부산 3%. 지난해 대비 생산량 감소

올리브유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4월 국제 올리브유 가격 1년 전 보다 44.7% 상승

나의 실천

'용기내 챌린지'는 음식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용기내에 식재료나 음식을 포장해 오는 운동이다. 학교 숲 분식집에서 텀블러와 반찬통을 들고와 친구들과 함께 실천했다. 텀블러에 밥의 열량이 갈 녹지도 않고 편해서 더 맛있게 잘 마실 수 있었던 것 같다.





박서윤 중학교 3학년

2024년 07월 09일 화요일

날씨 맑음

기사정리

저는 인천대 해양학과와 김승규 교수입니다.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에 쌓인 양을 처음으로 정확히 계산한 연구로, '야성의 과학 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1년 세계 해양플라스틱 총량을 2억 7000만톤, 이 중 미세플라스틱을 약 8000만톤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서북극해에 상당한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존재하며 그 오염도가 전 세계 해양 평균을 웃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북극을 청정 지역으로 인식하지만, 해류 분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북극의 빙하와 바다에 쌓일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북극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생태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빙하가 녹을수록 미세플라스틱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으며, 햇빛바사드를 얹어 해빙을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미세플라스틱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대응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김승규 인천대교수

나의 생각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승규 교수의 연구가 북극처럼 청정하다고 여겨지던 곳에서도 상당한 양의 미세플라스틱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오염이 퍼져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기후변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해양오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안임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나의 실천

나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최대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했다. 또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무단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들도 숙지하여 분리배출 하였다. 플라스틱 사용도 줄여야 하지만 기존 비닐, 종이팩 같은 쓰레기까지 분리배출로 중요하다.



장려상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승규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승규 교수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기사입니다.



2024년 07월 10일 수요일

날씨 맑음

기사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환경에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ICE) 등의 수요 증가로 카페와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세가 아닌 자발적 실천에 맡겨지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등을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나와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할 때이다. 지난해 5월 16일부터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바이바이 플라스틱챌린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플라스틱, 왜 줄여야 할까?

① 환경오염

- 플라스틱은 오랜 기간 분해되지 않고 다양한 생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특성을 잃고 방출되어 생태계를 파괴한다.

② 생태계 위협

- 버려진 플라스틱은 해양과 육지로 흘러서 새끼 파괴, 독성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문제 등을 유발하여 물리적 위협이 된다. 이는 결국 생태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③ 기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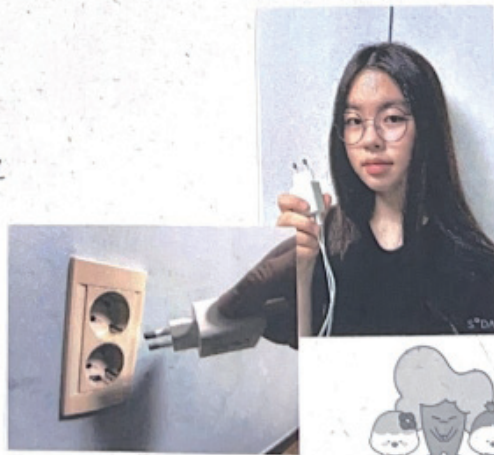
-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나 천연가스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쓰레기 처리 시의 연소 불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의 방출로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④ 인체에 부정적 영향

- 일부 플라스틱 제품은 호르몬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생식기암, 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나의 실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그 공제권에 대해 알고 물리적 자원과 더불어 에너지 자원까지 절약 하였다. 일하는 콘센트를 뽑고 사람이 없는 방의 불은 끄고 소등하여 전기에너지 또한 절약할 수 있었다.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박서윤 중학교 3학년

2024년 07월 12일 금요일

날씨 흐림

기사정리

최근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탄소중립'.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한 실정이다. 이에 생활 속에서 지구와 나를 지키는 친환경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다.

제로 웨이스트는 하나의 체계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수많은 아이디어의 집합이자 자연친화적인 삶, 페이퍼리스 등의 생활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플라스틱도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만든 생물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금금 체계에 관해 깊이 고려해봐야 한다.

집 밖에서의 초간단 '제로 웨이스트' //

○ 도시락

포장음식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다. 도시락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도시락 가방에 야채, 점심, 간식은 물론이고 치약이나 휴지 같은 소지품도 넣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 재사용물건 가져다 쓰기

회사 사무실에는 캔사레인지, 전지, 컵, 식기 등을 마련해 놓는 편이 좋다. 사무실 탕비실에 간식, 티, 인프저, 재사용가능 빨래, 울리브유 등을 늘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이동수단

'30분'의 원칙이 있다. 단거리 30분 미만거리는 걸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전거도 좋은 이동 수단이다. 걸어서 30분 걸리는 거리는 자전거로 10분이면 도착한다. 짧은 거리를 걸어서 걷거나 자전거 타는 시간을 늘려보자

○ 용기와 양 줄여주기

회사에서는 사무용품 줄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어렵지만 재택근무를 때는 100% 재생지를 구입해 사용한 양지를 아끼어 재활용 용지나 종이로 만든 용지를 사용하면 양을 줄일 수 있다.

나의 실천

상대되는 물을 줄이고자 양치할때 물컵은 사용 함으로써 일상속 사소한 행동 또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24년 07월 12일 금요일

기사는 저작권
저작물인
지적 재산권
이므로 무단
복제 배포
금지합니다.
본 기사는
작성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박서윤



2024년 07월 15일 월요일

날씨 맑음

기사정리

에스엘(주)은 해조류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해 미진 노베이언과 압출제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진노베이언은 환경보호와 미래세대를 위해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하고 플라스틱과 목재 등의 대체 친환경 소재를 개발 중이다.

특히 해조류는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뛰어나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되며, 식량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해양 환경을 지키는 해조류 플라스틱 //

0 해조류 플라스틱이란?

▷ 플라스틱 대체품. 해조류로 만든 플라스틱

0 해조류 플라스틱의 특징

▷ 24시간 형태 유지

해조류로 만든 플라스틱 물과 땀대는 물에서 24시간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음

▷ 환경에 유해한 것 없이 지리는 특징이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적다.

▷ 자연분해

해조류로 만든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60일 이내에 자연 분해됨.

▷ 해조류의 버리는 부분까지 자원화해서 플라스틱을 대체 할 수 있다.

▷ 인체에 무해

해조류를 원재료로 사용하되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섭취가 가능함

▷ 이산화 탄소 흡수율이 높아 지구 온난화를 어느 정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의 실천

바탕은 귀중한 해양오염과 지구상 생물의 감소로 행동 않고 있다. 대체 플라스틱 고안'을 만들어 먹고, 실제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에어컨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학
년
월
일